

부활절 네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4년 4월 2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46 장 “주 음성 외에는” (통일 50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3 번 시편 2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Psalm) 23:1-6, 요(John) 10:11-18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대
설 교 Sermon	“선한 목자” (The Good Sheper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569 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일 44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삶이 따르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작은 시험 앞에서도 늘 염려하며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3:3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1)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John 10: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21 (주일)	4/22 (월)	4/23 (화)	4/24 (수)	4/25 (목)	4/26 (금)	4/27 (토)
레26	레27	민1	민2	민3	민4	민5	
시33	시34	시35	시36	시37	시38	시39	
전9	전10	전11	전12	아1	아2	아3	
딤텐1	딤텐2	딤텐3	몬1	히1	히2	히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4/24수 오후7:30)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4:1-6)
토요 새벽기도회(4/27토 오전6:30)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시135:13-21)

지난 주일(4/14) 말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사6:1-9, 눅 24:36-48)**

오늘의 신약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은 (마치) “개기일식 (Solar Eclipse)”으로 태양이 달에 가려진 것처럼, 무엇인가에 가려져서, 부활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문제요, 또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눅24:25).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엡1:17-19)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려진 영적 시선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의 상실된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시금 되살려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눅 24:45) 가능해집니다. 즉,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내적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주실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우리에게만 집중된 이기적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거룩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맞겨주신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